

# 전남 문인들, 전남문학관 건립 팔 권었다

남도문학 아우르는 공간 필요  
남도문학관광벨트 구축과도 연결  
전남문협, 범도민 서명운동 전개

문학이 모든 예술의 뿌리라는 말은 더 이상 새롭지 않다. 그만큼 모든 예술은 기저에 문학을 토대로 하고 있으며, 다양한 콘텐츠로 전이된다.

남도는 문학의 고장이다. '문불여장성'(女不如長城)의 장성을 비롯해 문림의 고장 장흥, 유배문학의 산실 해남, 가사문학의 터전 담양 등 여느 지역과 차별화된 문학 자원이 있으며 뛰어난 문인들을 배출했다.

그러나 지난해 서울 용산이 한국문학관 부지로 선정됨으로써 유치를 위해 발 벗고 나섰던 전남도를 비롯한 일부 지자체들의 허탈감이 만만치 않다. 전남은 그동안 문화예술 진흥을 위해 남도문예르네상스 사업으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왔다. 그러나 남도문예르네상스 기본 계획에 들어있던 한국문학관 유치 실패로 남도문학관광벨트 구축이라는 당초 청사진이 빛이 바랜 실정이다.

전남 문인들이 지역 문학을 아우를 수 있는 전남문학관 건립을 위해 발 벗고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전남문인협회(회장 김용국)는 문학관 건립을 위해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다고 최근 밝혔다. 9월 말 현재 1만7352명이 서명에 동참하는 등 문학관 건립을 지지하는 일반 도민들의 호응이 좋을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남문인협회는 문학관 부지로 특정 장소를 고집하거나, 장소 선정에 개입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박형동 전 전남문협회장은 "차후에 도가 소유하고 있는 부지로 결정되면, 지자체에서 무상으로 제공을 하든, 여러 방식이 있을 수 있지만 문협 차원에서 가이드라인이나 한정을 짓지 않겠다는 의미"라고 밝혔다.



전남문협은 전남문학관 건립을 위해 범도민 서명운동을 전개했다. 사진은 지난 4월 보성군청소년수련원에서 열린 '남도문학' 심포지엄 장면. <전남문협 제공>

그러면서 "지금부터 특정 지역을 염두하고 건의를 한다면 지역 여론이 갈라지기 십상"이라며 "다만 자문이 필요한 경우 그때 가서 의견 표명을 하는 수준에서 얘기를 할 수는 있다"고 덧붙였다.

당초 전남문협은 지난 3월 김영록 지사 도민과의 대화에서 전남문학관 건립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 같은 의견은 한국문학관이 서울에 건립되면 지역 간 문화 발전 및 문학 정보와 자료 등을 공유하기 위해 6개 지방 거점문학관을 지정해 육성한다는 계획과 맞물려 있다. 또한 전북이나 경남 등 타 지역은 도립문학관이 있는데, 오랜 갈등 끝에 광주의 문학관 부지가 선정돼 건립 추진이 가시화되는 일련의 상황과도 무관치 않다. 문협의 텃밭이라고 자부하는 전남이 자칫 타 지역으로 거점문학관 지위를 뺏길 수 있다는 우려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전남문협은 지난 6월 자문위원회와 이사회 의결을 거쳐 문학관 건립 청원을 위한 범도민 서명운동을 전개하기로 결정했다. '전남문학관 건립 청원 서명운동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공동 위원장에 김용국 현 전남문협회장과 박형동 전 회

장을 선임했다.

추진위원회는 전남 각지를 돌며 전남 22개 시군 문인협회지부 회원들을 비롯해 문학인, 일반 주민을 대상으로 서명운동을 전개했다.

이들은 청원서에서 "전남의 22개 시군에는 11곳의 지역문학관이 세워져 있으나 정작 전남문학관이 없어 이들 문학관과의 연계사업이나 남도가 가진 우수한 문학적 자산을 관광상품화하거나 남도문학을 선양하지 못하는 실정"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남도문예르네상스 28개 사업 중 문학 분야는 한국문학관 유치와 남도문학관광벨트사업이 책정돼 있었으나 한국문학관은 이미 서울 용산으로 확정됐다"며 "문학 분야는 남도문학관광벨트 조성은 유일한 사업"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추진위원회는 전남문학관 건립을 위해 서명운동을 비롯한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계획이다. 올해 안에 청원서를 전남도에 제출하는 것은 물론 건립 필요성을 각계에 알리고 설득하기 위한 학술발표회, 결의대회 등도 개최할 예정이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강연과 음악회 등으로 구성된 '성인 사이언스 나이트 페스티벌'이 오는 12월 4일 국립광주과학관에서 열린다. 사진은 광주과학관이 운영하는 특수영상관 '스페이스 360'. <광주과학관 제공>

## 과학과 예술의 하모니 경험하세요

국립광주과학관 다음달 4일

성인 사이언스 나이트 페스티벌

'클래식 음악과 과학의 만남.' 겨울밤 달빛아래 펼쳐지는 과학과 예술의 하모니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된다.

국립광주과학관(관장 김선아)이 성인들을 위한 겨울밤의 과학 산책 '성인 사이언스 나이트 페스티벌'을 개최한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로 2회째를 맞는 이번 페스티벌은 12월 4일 오후 6시 국립광주과학관 일원에서 열리며 30세 이상의 성인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먼저 드라마 '카이스트' 주인공의 실제 모델로 알려져 있는 황정아 박사(한국전문연구원 책임연구원) 초청 강연이 과학관 상상홀에서 열린다. 황 박사는 이날 '지구인으로 살아가기-우주날씨와 인공지능'을 주제로 강연한다. 황 박사는 현재 국가 우주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한국을 빛낼 젊은 과학자 30인에 선정되기도 했다.

또 광주시립교향악단 이종만 악장과 비올리스트 엄광호(광주시향 수석 단원), 피아니스트 서현일이 '겨울밤의 미니콘서트'를 꾸민다. 과학관 중앙홀에서 열리는 이번 콘서트에서는 '달'을 주제로 한 곡들을 선보인다. 베토벤의 피아노 소나타 14번 '월광', 영화 '티파니에서 아침을' 중 '문 리버(Moon river)' 등 클래식과 대중적인 OST를 함께 무대에 올린다.

그밖에 생황 속 과학체험으로 사이폰 드립커피,



황정아 박사



이종만 악장

수제맥주 만들기를 운영하며 전체 망원경을 활용한 천체 관망도 진행한다.

과학관이 운영하는 '스페이스 360'을 직접 체험해 볼 수 있는 기회도 마련된다. 국내에서 최초로 선보이는 '스페이스 360'은 지름 12m의 구형 스크린을 갖추고 있는 특수영상관으로 전방위에서 영상이 구현되는 360도 3D 가상현실 공간이다. 관람객은 강화유리로 제작된 감상용 다리 위에서 모든 방향으로 영상을 볼 수 있다. 이번 행사에서는 박병으로 시작된 빛과 지구의 탄생, 인류의 발전과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신재생 에너지 탐구를 주제로 한 15분가량의 영상을 상영한다. 아울러 저녁 시간대 행사가 진행됨에 따라 케이터링도 제공된다.

참가신청은 오는 28일까지 국립광주과학관 온라인 통합예약시스템에서 할 수 있다. 참가비 1만 5000원. /전은재 기자 ej6621@kwangju.co.kr

## 관현악으로 만나는 '님을 위한 행진곡'

광주문화재단 특별음악회

29일 빛고을시민문화관

5·18민주화운동을 상징하는 노래인 '님을 위한 행진곡'을 피아노와 바이올린 등 관현악으로 만날 수 있는 무대가 마련된다.

광주문화재단 특별음악회 '님을 위한 행진곡'이 오는 29일 오후 7시30분 빛고을시민문화관에서 열린다.

이번 음악회에서는 지난 2018년 '님을 위한 행진곡'을 주제로 위촉·창작된 작품인 황호준의 '님을 위한 서곡 '빛이 있는 마을'', 박영란의 '님을 위한 행진곡 주제에 의한 피아노 협주곡 '5월, 광주''와 창작관현악 공모에서 우수작으로 선정됐던 김신의 '님을 위한 행진곡에 의한 교향적 환상곡'이



동수정

조정현

남인

연주된다. 광주시립교향악단이 공연하며, 피아니스트 동수정과 바이올리니스트 남인이 무대에 오른다. 지휘는 서울대를 졸업하고 미국 신시내티 오페라 전문연주자 과정을 수료한 후 50여편의 오페라를 지휘한 조정현이 맡았다.

동수정은 전남대 음악학과 졸업, 이화여대 대학

원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현재 이화여대 공연예술대학원 초빙교수이다. 박영란 작품 '님을 위한 행진곡' 주제에 의한 피아노 협주곡 '5월, 광주'를 연주한다.

한국예술영재교육원에 재학 중인 남인은 예원학교를 수석 입학했으며 현재 3학년에 재학중이다. 호남예술제 최고상 등을 수상했으며 금호영재 콘서트 독주회에 참여했다. 올해 서울시향 마스터 클래스 오디션에 합격했으며 청주시향, 수원시향 등과 협연했다. 연주 레퍼토리는 대중들에게 친숙한 사라사테의 '지코이네르바이젠'이다.

광주와 광주문화재단은 '님을 위한 행진곡' 대중화·세계화 사업을 지난 2018년부터 진행하고 있으며 올해는 지난 5월 '님을 위한 행진곡' 창작 관현악 공모선정곡 초연 음악회를 시작으로, 독일 뮌헨 '바이에른방송교향악단'과 '광주시립교향악단' 연합 오케스트라 연주회, 부산 부마항쟁 40주년 기념 특별음악회, ACC 슈퍼클래식 등 4차례 연주회를 개최했다. 전석무료.

/전은재 기자 ej6621@kwangju.co.kr

## 문화? 정의? 인권도시?...광주의 도시 정체성은

광주문화도시협의회, 28일 포럼

광주의 도시 정체성을 확인하고 도시가 지향해야 할 가치를 점검하는 포럼이 열린다.

광주문화도시협의회(상임대표 박병주)는 28일 오후 3시 5·18민주화운동 기록관 7층 세미나실에서 '광주, 문화 및 정의와 인권 도시 가능한가?'를 주제로 포럼을 개최한다.

한 선 호남대 교수가 사회를 맡는 이번 포럼에서 전용호 광주시 상임인권운동부즈맨이 '광주광역시 문화·관광 현황과 인권도시 추진과정'을, 신경구 광주국제교류센터 소장이 '문화도시 광주와 인권

도시 광주의 파급효과'를 주제로 발표한다.

주제 발표에 이어 김기근 광주전남연구원 사회환경연구실장, 서순복 조선대 법과대학 교수가 지정토론자로 참여하며, 김은지 광주여성민우회 활동가, 정두용 청년문화허브 대표가 토론 패널로 참여한다.

이번 포럼에서 주제 발표자와 지정토론자 및 패널은 '인권과 문화가 조화를 이루는 도시', '문화민주주의가 바탕이 되는 정의와 인권의 도시 광주'를 만들어 가기 위한 행정의 역할 등에 대해 중점 토론할 예정이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 태양광발전소 선착순 분양!!

20년 장기계약으로 안정된 연금식 소득 보장  
금융이자소득에 비해 높은 수익률 보장

**분양 예정 지역**

고흥 / 해남 / 여수 / 순천 / 광양 / 강진  
남원 / 영주 / 음성 / 김천 / 천안 등

100kw / 150kw / 200kw / 300kw / 500kw / 600kw / 700kw / 1MW 등

※ 각지역 맞춤형 발전소 가능

● 인허가 및 시공      ● 각 지역 지사장 모집

**한일솔라에너지**      상담전화 0505-337-3500      대표전화 1522-3097 / FAX 0505-313-3500  
0505-362-9000      본 사 광주광역시 북구 독립로 349(중흥동 665-29)